



2017

WINTER

EDITION



AEIP

ACTIVE ENGAGEMENT & INTEGRATION PROJECT

NEWSLETTER

P2 인도에서의 대규모 『AEIP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행사

P3 AEIP 베이징 서비스 센터 방문 보고

P4 석세스 AEIP 가을 특별 워크숍: AEIP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리다!

P5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로 정착하는 AEIP 회원을 위한 ISIP 온라인 프로그램

P6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P7 이민생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아갈 생각 끝에...

P8 나의 AEIP 체험담

P9 친절의 대물림



AEIP

ACTIVE ENGAGEMENT & INTEGRATION PROJECT

2017 Winter • P2

인도에서의 대규모 『AEIP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행사

AEIP(Active Engagement and Integration Project)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의 지원 하에 석세스(S.U.C.C.E.S.S.) 기관이 운영하는 출국 전 프로그램입니다. AEIP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한국과 대만의 새 이민자들이 자국에 있는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AEIP는 인도,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과 중국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인도는 지난 몇 년 동안 캐나다로 이민자를 가장 많이 송출하는 상위 세 나라 중 한 국가입니다.

AEIP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자국에 있는 동안 취업과 정착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한 센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스탑 서비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출국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EIP는 센터를 찾아와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EIP가 필요한 곳이라면 정기적인 아웃리치 세미나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EIP는 2016년부터 인도 현지에서 새 이민자들을 위한 아웃리치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참석자들은 캐나다로의 이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AEIP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AEIP의 인도 아웃리치 서비스는 뭄바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매우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이민자들과의 교류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2016년 6월, AEIP는 두 번째 아웃리치로 뉴델리를 방문했고, 그 피드백 역시 아웃리치 서비스가 긍정적이고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피드백들은 인도에서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인도에서 얻은 경험과 인도내의 파트너 협업을 통해, AEIP는 2017년 2월에 뉴델리, 찬디가르, 코치로 아웃리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위 세 도시에서 캐나다로 가는 새 이민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도에는 Can Access Immigration, Canada Immigration Limited, Master's Academy 가 파트너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일대일 상담이 각 도시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대일 상담은 Settlement Practitioner가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미팅을 하며 출국 전에 필요한 사항에 맞춰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출국을 앞둔 회원들이 모여 서로의 걱정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 캐나다에서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대규모 행사는 AEIP 대만 센터 주최로 2월 11일 찬디가르, 2월 12일 뉴델리 그리고 2월 18일 코치에서 개최됩니다. 영주권 확인서(COPR), 신체 검사 지시서, Visa 발급 이메일이나 여권 제출 안내를 받은 이민 신청자는 이번 행사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aeipasia@success.bc.ca) 문의나 홈페이지(www.aeipsuccess.ca)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AEIP

ACTIVE ENGAGEMENT & INTEGRATION PROJECT

2017 Winter · P3

AEIP 베이징 서비스 센터 방문 보고

CCIS (Calgary Catholic Immigration Society) AEIP 담당자로서 지난 2016년 11월, AEIP 베이징 센터를 방문하여 이민자들과 함께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베이징 센터 방문을 통해 베이징 팀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업무 추진력, 그리고 베이징 센터 매니저인 루크(Luke)의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방문 일정 동안 AEIP와 CCIS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토론했습니다.

저는 베이징 회원들을 위해 앨버타주 개요, 앨버타 산업과 직업 소개, CCIS가 제공하는 취업과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출국 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최초로 접하는 캐나다인이 제가 될 수도 있기에, 출국 전에 이민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밟아야 할 단계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이민자로 와서 살고 있고,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회원들과의 유대감이 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궁금해하고, 걱정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캐나다에 도착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동안 참석자들이 보여주는 적극적인 반응에 감명받았고, 그들과 서로 교감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CCIS는 앨버타 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민 정착 기관으로 출국 전과 출국 후를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EIP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앨버타가 이민자들의 첫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성: 세실리아 선(Cecilia Sun), AEIP 담당
Calgary Catholic Immigration Society (CCIS)





AEIP

ACTIVE ENGAGEMENT & INTEGRATION PROJECT

2017 Winter · P4

석세스 AEIP 가을 특별 워크숍: AEIP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리다!

석세스 가을 특별 워크숍은 2016년 11월 12일 하나은행 세미나 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특별 워크숍은 석세스 AEIP 정회원뿐 아니라 준비회원들도 초대하여 캐나다 이민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진행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지원 출국 전 서비스 활용 방법, 이민자 외환 거래 방법, 해외 이주 화물, 캐나다 개인 소득 및 해외 자산 보고, 퀴즈로 전하는 캐나다 핵심 정보를 다룬 후 네트워킹 시간과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큰 감동과 자극을 준 코너는 영상물로 제작한 정착 스토리였습니다. 캐나다 랜딩 후 한 달도 되기 전에 취업을 하게 된 과정에서 석세스 AEIP가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출국 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착에 관한 정보를 퀴즈 형식으로 재미있게 전달하고, 그룹별로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AEIP 워크숍에 참석한 회원들이 정답을 맞추는

것을 보며 많은 참석자들이 워크숍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체 참석자 52명 중 17명이 준비 회원이었으며, 이들에게 AEIP 프로그램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은 석세스 AEIP가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이 제일 좋았고, 석세스 AEIP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회원과 준비회원, 6명의 자원 봉사자들, 하나은행 직원과 석세스 직원이 하나가 되어 한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AEIP의 역할에 감사와 자부심을 느낀 자리였습니다.

작성자: 이진영

Settlement Practitioner / Employment Specialist,

AEIP 서울 서비스 센터



AEIP 서울 센터의 가을 특별 워크숍 : 퀴즈로 전하는 캐나다 핵심 정보



AEIP

ACTIVE ENGAGEMENT & INTEGRATION PROJECT

2017 Winter • P5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로 정착하는 AEIP 회원을 위한 ISIP 온라인 프로그램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AEIP 파트너인 ISIP(Immigrant Settlement and Integration Program)이 제공하는 BC주 거주자를 위한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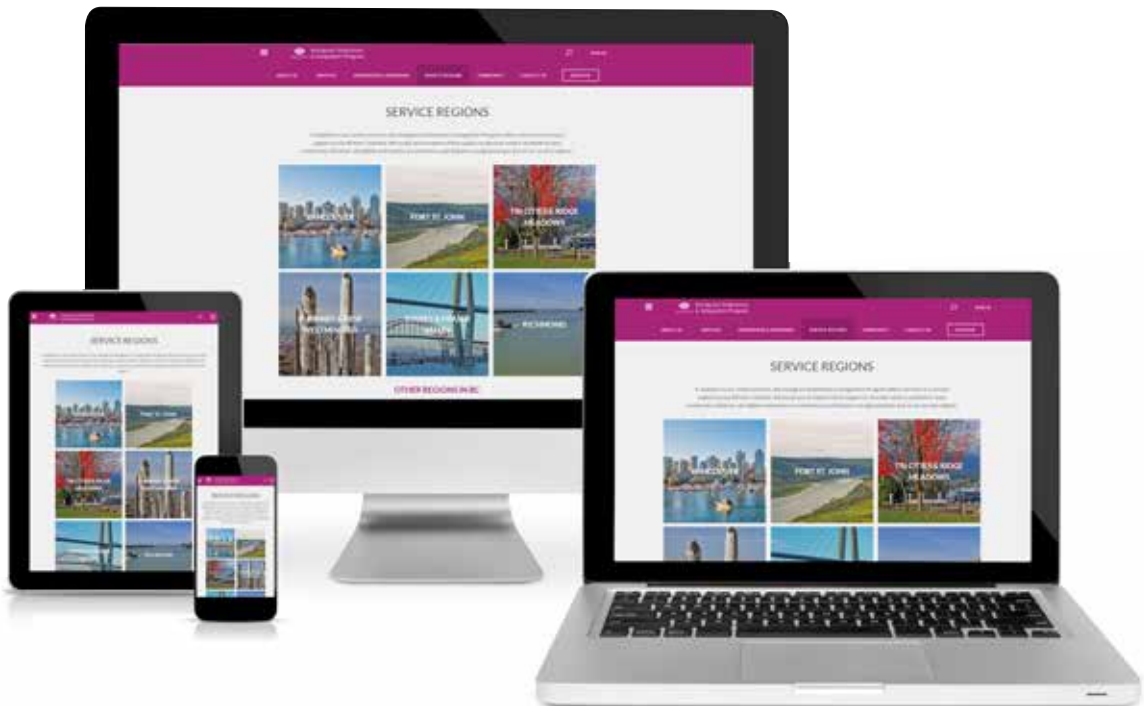
‘직장에서의 명확한 의사 전달(Clear Communications for the Workplace)’은 8주 코스로, 문화 인식, 다양성, 비즈니스 미팅, 서면으로의 의사 소통, 대인 관계 능력과 기본 필수 기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숙련된 영어 능력을 배양하여 직장에서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성공을 위한 취업 기술 개발(Employment Skills Development for SUCCESS)’은 구직 기술과 캐나다에서의 취업 경로에 대한 과정으로 총 8 주간 진행됩니다. 직장 문화, 학력/경력 인증, 대안 직업, 프로페셔널 네트워킹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두 과정 모두 CLB 6~8의 언어 능력을 요구하며, 주당 5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BC주에 도착한 후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는 참가자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참여자와 시간을 맞춰 상담 시간을 정해 프로그램 수료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ISIP 온라인 강좌들은 개인의 일정에 따라 유연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BC주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두 과정 모두 캐나다 직장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IP은 AEIP와 함께 출국 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랜딩 후에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통해 이민자들의 정착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ISIP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등록 문의는 www.isiponline.ca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AEIP

ACTIVE ENGAGEMENT & INTEGRATION PROJECT

2017 Winter · P6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저는 6개월 전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온타리오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윤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 생활 초기에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적어보려 합니다.

먼저 이민에는 어느 정도 목돈을 쓸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아무 신용이 없는 이민자는 기본적인 생활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신용이 없어 자동차를 일시불 현금으로 구매해야 했고, 집을 렌트 할 때에도 최소 6개월, 때로는 1년치 렌트비를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용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은 당연히 요구를 합니다. 직장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첫 한 달간 수 만 불을 소비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직원 채용시 캐나다 경력자를 우선시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 신규 이민자가 그 벽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 취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본인의 자산과 예상 지출을 잘 계산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에 내몰리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정착과 관련된 정보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AEIP 서울 센터에 2015년 11월에 등록을 하여, 취업과 정착에 관련한 다양한 워크숍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전담 카운슬러와의 개인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었던 상태에서 현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오신 카운슬러의 조언은 유용한 정보였을 뿐 아니라 이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해소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시로 개인 면담을 통해 저의 상황에 꼭 맞춘 조언을 해 주신 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AEIP에서 연결해 주신 IT 분야의 현지 파트너 기관인 ICTC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이력서 작성과 인터뷰 기술을 보강하고, IT 분야 현직 강사진들과의 인맥을 쌓아 QA Automation Architect Position에 Full time/Permanent로 이민 후 5개월 만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중 한 명이 본인이 일하는 회사에 추천을 해주어, 지금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민 생활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며 일하고 있고, 아이는 유치원에 적응하느라, 그리고 와이프도 아이와 저를 내조하면서 동시에 이 곳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은 길게 봐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우선이기에, 모든 결정을 할 때 가족을 우선으로 하며 가족에게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면 언젠가는 이민 결정이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 서윤성, AEIP 서울 센터 회원





AEIP

ACTIVE ENGAGEMENT & INTEGRATION PROJECT

2017 Winter · P7

이민생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아갈 생각 끝에...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12월 14일이면 밴쿠버에 정착한지 3년째가 됩니다. 이제는 사는 게 힘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은 것이 이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행히 둘 다 밴쿠버 공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항 내 국제 항공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 1년차 때에 영어는 준비가 안 되었고 이 곳에서 취직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100번도 넘게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답답하고 빛이 없던 긴 터널과 같던 그 시기에 밴쿠버 석세스 본사에서 근무하는 한인 직원분이 저희 부부를 특별히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AEIP 서울 센터에서 예전에 근무하던 스태프분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닿아 이 곳에서 저희 부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저희는 밴쿠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오전 8 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이민자 무료 언어 프로그램인 LINC 수업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영어가 안 되면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민 생활 성공의 잣대는 첫째도 영어, 둘째도 영어, 셋째도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프로그램 수업과 동시에 영주권자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취업 담당 매니저가 배정되었고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 정보를 얻는 등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둘 다 첫 번째 레쥬메를 보낸 것이었는데 한 번에 모두 합격하여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분들을 만나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도전하여 바로 캐나다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이민 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면, 수많은 질문을 아내와 함께 던져봤습니다. 나는 여기에 남아

있는 게 잘하고 있는 일인가?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남아서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바라는 성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 통장의 잔고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렌트비 내고 생활비 쓰고 조금이라도 저금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두 달 전부터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의 돈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 있는 AEIP 서울 센터에서부터 워크숍에 열심히 참석했고 개별 상담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석세스와의 인연이 밴쿠버 현지에서도 석세스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만난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에서의 만남과 그 관계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글이 이민 정착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현지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작성: 조영준, AEIP 서울 센터 회원





AEIP

ACTIVE ENGAGEMENT & INTEGRATION PROJECT

2017 Winter • P8

나의 AEIP 체험담

남편과 함께 2016년 6월 뉴델리에서 열린 AEIP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캐나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AEIP Settlement Practitioner 와도 만났고 다른 이민자들과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에 온타리오주, 토론토로 이주했습니다. 공항에서의 랜딩 수속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고, 공항에서 바로 사회보장번호(SIN)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까지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낯선 도시에서 주거지를 구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긴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토론토에 사는 친구가 있어 랜딩도 하기 전에 우리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처음에는 호텔이나 비앤비 숙소에서 머물 것이지만, 이민부(IRCC)로부터 받게 될 각종 서류를 생각하여 우리는 임시가 아닌 우리의 주소지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랜딩한지 한 달 만에 각자의 분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온라인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한 덕분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신규 이민자로서 너무 까다롭게 직장을 고르기보다는 선택한 분야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갖는게 좋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구직 활동 외에도 의료보험이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일도 중요한데 이 카드들은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을 항상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저희는 캐나다 현지 신규 이민자 지원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랜딩한 다음날 토론토와구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ACCESS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복사기와 스캐너, 컴퓨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이는 구직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보다 기관에 가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같은 목표를 공유한 많은 이민자들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취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이민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토론토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는 다른

이민자들과의 네트워킹인 거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캐나다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캐나다가 멋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규 이민자에게 있어 취업의 기회를 알아보는 과정에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그들에게 채용 기회를 줄 때까지 자신의 자격과 경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능력을 갖춘 사람은 눈에 띄게 되어 있다고 믿으며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하며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성 : 메가 샤마 (Megha Sharma, 인도 아웃리치 회원)

지원 센터 : 타이베이 센터





AEIP

ACTIVE ENGAGEMENT & INTEGRATION PROJECT

2017 Winter · P9

친절의 대물림

오늘까지도 나의 이민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동기 부여가들이 있었고, 그 중 누가 마지막 푸시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EIP를 처음 알게 된 곳은 스코샤 은행에서 주최한 워크숍이었고, AEIP 스태프가 초청 강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AEIP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할수록 AEIP 베이징 센터에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AEIP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입니다. AEIP가 캐나다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이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친구들은 AEIP의 모든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그 내용을 적은 노트를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강조하며 말하고 싶은 것은 AEIP 스태프에게 배운 점들입니다.

루크(Luke) 매니저는 처음 AEIP를 방문한 날부터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민자들에게 있어 큰 형과 같았고, 우리가 묻는 질문에 항상 침착하고도 친절하게 답해주었습니다. 그에게 배울 수 있었던 건, 캐나다 생활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열정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참석자들 모두는 중국 사회 안에 가려져 있던 삶에 대한 진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릭(Rick)은 저를 담당해 준 Settlement Practitioner입니다. 캐나다 세금과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해당되는 자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구직 활동, 프로페셔널 트레이닝, 프로페셔널 협회 등 우리가 속한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종이 끝이 닳도록 아내와 함께 그 자료를 자주 봤습니다. 그 자료들은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제 마음을 명확히 해주었던 AEIP 베이징 센터 스태프들이 떠오릅니다. 테일러, 테야, 마야 모두요. 그들 모두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캐나다에서부터 온 첫번째 햇살 같다고 할까요.

랜딩한 이후, 이민자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특히 석세스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석세스는 중국 커뮤니티를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푸젠성과 북한에서 온 이민자를 위해 과일 판매대를 설치한 '비딩 어소시에이션(Bidding Association)'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석세스와 함께 캐나다에 중국 커뮤니티의 가치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야 본인이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와 민족 정체성에 대해 깨닫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도 랜딩 후에 다양한 문제들을 겪으며 문화적인 충격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서로를 돕는 전통을 가진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 뿐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 모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생활에 대한 조언, 지역 맛집 뿐 아니라 새 집으로 가기까지의 몇 번의 이사들도 기꺼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추운 겨울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함은 이민 오기 전에 가진 AEIP를 통해 그리고 석세스와 중국 커뮤니티와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친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자주 공항으로 이민자들을 마중 나가며, 물론 무료로요, 그들이 캐나다에 발을 딛는 그 순간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한밤중에 공항을 나서는데, 아내는 만두를 준비해 갑니다. 긴 여행으로 인해 무척 배가 고플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 서류 작업, 집 구하기, 자동차 구입, 쇼핑하기 등을 가능한 많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AEIP 동기들은 모두 새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돕는 도움의 고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서로를 돕는 따뜻한 마음은 프리 런치라고 생각됩니다. 캐나다에서의 중국 커뮤니티는 석세스와 AEIP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세스는 저에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친절의 대물림이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 : 데이비드 유(David Yu),
AEIP 베이징 센터 회원



VANCOUVER (CANADA)

Phone 1-844-893-8222 (USA & Canada)

Email aeipvan@success.bc.ca (Canada)
aeipusa@success.bc.ca (USA)

Address

206-181 Keefer Place
Vancouver, BC V6B 6C1
Canada

SEOUL (SOUTH KOREA)

Phone 82-2-775-8983

Email aeipseoul@success.bc.ca

Address

#701 DooBee Building 11-3 JeongDong,
JungGu Seoul, Korea

TAIPEI (TAIWAN)

Phone 886-2-2389-9088

Email aeiptaipei@success.bc.ca

Address

12F. No.6, Sec. 1,Zhongxiao W. Road,
Zhongzheng Dist.,Taipei 100,
Taiwan, R.O.C.

BEIJING (CHINA)

Phone 86-10-6216-6928

Email aeipbeijing@success.bc.ca

Address

11th floor, Building D,
Beijing International Plaza,
18 South Zhongguancun Rd.,
Haidian District, Postal Code: 100081
Beijing, China

2017

WINTER

EDITION

